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5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19.(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5. 19(화)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바이오융합산업과
담당과장	최영수 과장(044-203-4610) 김재준 과장(044-203-4390)	담 당 자	한대건 사무관(044-203-4614) 김효선 사무관((044-203-4395)

K-바이오, 세계 바이오산업 선도한다

-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

1 간담회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9일(화) 15:00,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제4차 산업전략 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바이오산업 분야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차 대화, 5.6일) 포스트 코로나19 5대 변화와 8대 대응과제 제시
(2차 대화, 5.11일)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성과 확산과 GVC 재편 대응
(3차 대화, 5.15일) 철강 산업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 논의

- 금번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바이오 기업 CEO, 인천·충북 경자청, 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석하였다.

<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 2020.5.19(화) 15:00 ~ 16:20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송도)
ㅇ 주요 참석자 및 참석기업(총 20여명)
- (정부) 산업부 장관, 인천·충북 경자청장, 대구경북 경자청 본부장(청장 직무대리)
- (업계)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DM바이오·얀센백신 등 바이오 기업 대표이사
- (유관기관) KOTRA 사장, 겐트대 글로벌캠퍼스·한국뉴욕주립대 총장, 인천 테크노파크 원장 등

2 산업부장관 모두발언(별첨 참조)

○ 성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 19 키트 등의 수요 확대로 크게 증가*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 바이오헬스 수출액(억불) : ('19.4) 8.4억불 → ('20.4) 10.9억불

○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개발 지원, K-방역의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K-바이오, K-방역 브랜드 가치를 지속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사·확진 → 역학·추적 →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절차와 기법 등을 국제표준(18종)으로 제정 추진

○ 또한,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원부자재와 장비의 국산화 지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하였다.

*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필터, 배지 등 원부자재, 장비 국산화 R&D 지원('20년 220억원)

○ 한편, **인천·충북·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미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이 구축**되어있어 K-바이오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K-바이오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주길 당부하였다.

* **(인천)** 세계 최대 생산기지(56만ℓ), 연구개발 최다성과('18년 국내 허가 12개 중 7개)
* **(충북)** 오송을 중심으로 한 충북도 바이오 생산액(1.8조) 및 종사자수(7,500명) 전국2위
*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방사광가속기(포스텍)를 바탕으로 의료기기·신약개발에 유리

3 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금번 간담회를 통해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각각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현재 구축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추가 부지를 조성하여(28만평→60만평) **원·부자재 공급기업, 연구개발 기업 등을 중점 유치**하고, 벨류체인을 전주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K-바이오를 선도하는 세계최대 글로벌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생산 벨류체인 강화** ②K-바이오 육성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확충** ③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한 **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등 3대 전략 및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특히, ①입주기업(60개→700개), ②고용규모(5,000명→20,000명), ③누적투자(7조원→15조원), ④매출액(2조원→10조원) 부분에서 **2030년까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나아가야할 목표를 제시하였다.**

○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지난해 5월 발표한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30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오송 바이오 R&BD 인프라 구축', '바이오 핵심인재 양성 활성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육성'** 등 6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 이를 통해 2030년까지 ①바이오 스타트업(422개→1,000개), ②생산규모(1.8조원→7조원), ③인력양성(3,050명→50,000명) 부분에서 **충북 바이오 산업의 발전 목표**(충북도 전체)**를 제시**하였다.

4 업계 건의 등 지원방안 논의

○ 바이오 업계는 **바이오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시설 건립,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 참석 기업인들은 **국내·외 바이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바이오 전문인력의 공급은 부족**하다며, 기업맞춤형 및 현장실무형 생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희망**하였다.

- 아울러,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아 시장 개척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위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의 전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향후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해 나가겠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한대건 사무관(☎ 044-203-46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장소) '20. 5. 19. 15:00~16:20 / 인천 경자청 27층 대회의실(송도)

○ (참석자) 산업부, 경자청, 바이오 기업·유관기관 등 20여명

* (정부) 산업부 장관, 인천·충북 경자청장, 대구경북 경자청 본부장(청장 직무대리) 등
* (업계)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DM바이오·얀센백신·보로노이·파인인사이트 CEO
* (유관기관) KOTRA 사장, 겐트대 글로벌캠퍼스·한국뉴욕주립대 총장, 인천대 산학협력단장, 유타인하DDS연구소 소장, 인천 테크노파크 원장, 오송 첨복재단 이사장 등

□ 보고 안건

①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발전 방안

②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

시 간	세부 내용	비고
15:00～15:02(02')	**참석자 소개**	진행자
15:02～15:07 (05')	**모두말씀**	**산업부 장관**
15:07～15:17 (10')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발전 방안	인천 경자청장
15:17～15:27 (10')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전략	충북 경자청장
15:27～16:17 (50')	토의	참석자 전원
16:17～16:20 (03')	**마무리 말씀**	**산업부 장관**

참고2 |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 인사 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5월 6일 출범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의 네 번째 회의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 바이오헬스 분야, 우리 경제 버팀목으로 부상 >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경제를 크게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고 유가하락도 겹치면서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등의
우리 주력품목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헬스 분야는
글로벌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 역대 최대 수출 규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 바이오헬스 수출액(억불) : ('20.1) 7.7 → ('20.2) 7.8 → ('20.3) 10.5 → ('20.4) 10.9
  - 수출 증감률(%) : ('19.4) 8.4억불(19.1%) → ('20.4) 10.9억불(29.0%)

이는 우리 바이오 업계가 글로벌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제품을
적기에 생산·공급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 ('20.2월 64만달러 → '20.4월 2억123만달러)

< 바이오산업 추진전략 >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지난 5.6일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에서
8大 핵심과제 중 하나로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상품화'를 제시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K-바이오, K-방역 브랜드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완전 종식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방역시스템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다수의 우리 기업들도
전 세계적인 치료제, 백신 개발 경쟁에
적극 뛰어든 것으로 압니다.

정부는,
R&D, 생산, 사업화,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에서 수립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로드맵을 필두로
K-바이오, K-방역 지원을 위한
부처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K-방역의 국제표준화*와
패키지(방역장비, 진단키트, 정보시스템) 수출을 지원하여,
K-바이오와 K-방역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 '검사·확진 → 역학·추적 →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절차와 기법 등을 국제표준(18종)으로 제정 추진

둘째, 규제개선을 통한 신시장 창출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20.1월)하여 핵심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DTC 유전자 서비스 항목 확대, 손목시계형 심장 관리 서비스 등
7건의 실증특례와 1건의 임시허가를 허용하고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바이오기업들이 신제품, 신기술을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효과성 등이 검증된 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인허가, 평가 등 규제를
기업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여
적기에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을 기반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 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여
전후방 산업을 견인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기술개발('20년, 130억원)

또한, GMP 시설을 갖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생산기지화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역량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클러스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연구개발, 생산, 사업화 등 전 영역에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역할 및 기대 >

특히, K-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노력에 더해,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을 이미 보유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인천 경자구역(송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DM바이오 등을 기반으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기반을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바이오의약품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송도(56만ℓ) > 샌프란시스코(44만ℓ) > 싱가포르(27만ℓ) > 아일랜드(23만ℓ)('18)

충북 경자구역(오송)은
80여개의 신약개발 기업이 집적되어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식약처 등 6대 국책기관*이 위치해 있고,
향후 인근 오창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건설되면
신약 개발기업을 위한 인프라는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식약처, 식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 경자구역(대구·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방사광가속기(포항) 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신약개발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입주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이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여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경제자유구역이 K-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금일 발표하시는 인천·충북의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이
이러한 발걸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바이오 특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맺음 말씀 >

오늘 이 자리에서 K-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 마련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